

# 페미니즘 문화비평 —신문 제19면 읽기

백지숙  
(문화평론가)

어느덧 우리사회에서도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되었다. 그 말은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용어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경로, 즉 초동단계에는 이러저러하게 번역되기도 하면서 그 용어를 정의하고 그에 따라 현상을 진단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다가, 그런 모색기를 거치고 나면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를 함축적으로, 또는 때로는 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정착기에 도달하는, 그런 경로를 겪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외국어들이 자신의 의미를 포괄하는 적절한 번역어를 찾지 못하면 일종의 외래어로 굳어지게 되는데, 페미니즘 역시 이런 외래어의 고달픈 운명을 어느 정도는 나누어 가지고 있다.

이때의 고달픈 운명이란 비유하자면 끊임없이 찢겨 나가는 혹은 떠돌며 방황하게 되는 그러한 운명이라고 할 수 있다.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한글로 표기하고 그 표기에 따라 발음하는 순간 그 말은 자신이 시작되었던 곳의 언어체계—물론 이 때의 언어체계란 단지 언어 뿐 아니라 의식과 행동의 역사성까지를 총괄하는 것이다—에서 떠난 이곳에서 자기 자리를 틀게 된다. 그러나 예상할 수 있듯이 그 말은 대개 태평양 이쪽과 저쪽으로 찢어져 전혀 맥락이 다른 의미로 쓰이거나, 아니면 다행히 그 말이 비교적 온전하게 모습을 갖춘 채 이식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어떤 정합적인 관련성을 맺으며 안착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말의 운명을 인정하고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그 말을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더 현명하게 보인다.

우선 전혀 다른 맥락에서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쓰이게 되는 경로를 살펴보자. 무엇보다 페미니즘은 남녀차별주의 혹은 가부장제를 철폐하려는 구체적인 개혁과 진보의 이념을 가지고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비록 그 방식이나 의미가 페미니즘 운동의 발전단계에 따라 변모하기는 하지만, 항상 그 작용범위나 영역에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는 광범위한 정치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이 아카데미의 틀 속으로 들어가면서 초기의 난폭했던 기운들이 세련되지고, 문학이나 미술의 전문예술영역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그 진위적인 공격성이 스타일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한 표면적인 경향 뒤에는 문제의식의 근원적인 부채가 자리를 잡고 있기 마련인 것이다. 최근 서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페미니즘 논쟁들은 그런 문제의식이 더욱 구체화된 형태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일이다. 초기의 중산층 백인여성 중심 논의가 인종, 계급, 민족 등의 갖가지 조합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분산되면서, 단일한 페미니즘론으로는 통합시킬 수 없는 그 역동성과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태평양을 건너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 근원적인 문제의식의 끈질긴 토착성에서 비롯하는 역동성과 예민함은 빠뜨린 채,

곧잘 세련됨 그 자체 혹은 다양성이 주는 느슨함이 녹아있는 형식적인 특징들만을 들여오는 경향이 있다. 특히 최근에 논의되는 페미니즘 미술론이니 페미니즘 비평론이니 하는 것들은 그런 특징이 두드러진다. 물론 미술이나 비평론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그 문제의식의 복합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해당 전문영역에서 논의되는 것들은 여성의 제도적 지위향상을 위한 투쟁의 언어일 뿐 아니라 페미니즘이 예술작품의 해석이나 창작의 방식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그 매개와 생산경로까지를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영역에서 페미니즘이 관통하는 과정은 일직선의 방향을 취하기 보다는 보다 고도화된 전략을 요구하는 나선형의 그것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문제의식의 회전과정, 그 무게가 주는 갑갑함은 재빨리 벗어던지고 단지 그 길쭉만을 직수입하려는 경향은 페미니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적대적인 것이기조차 하다.

그런가 하면 페미니즘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이해하고 그것을 구현하려는 입장들에서 보이는 어떤 부정합성이 있다. 이 입장은 물론 페미니즘이 현실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때의 현실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설명해내려 한다는 점에서 앞서의 경우보다 훨씬 진지한 것이기는 하다.



무제 (신디셔먼) 1989



자화상 우리이야기 (박영숙 윤석남 공동제작) 나무, 사진, 아크릴 1992

그러나 이런 경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이곳의 특수성을 설명하려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서구의 문제들과 이곳의 차별성을 가려내는데 힘을 쏟게 되며, 그 차별성을 가장 손쉽게도 일정한 단계론을 따르는 것으로 확보하려 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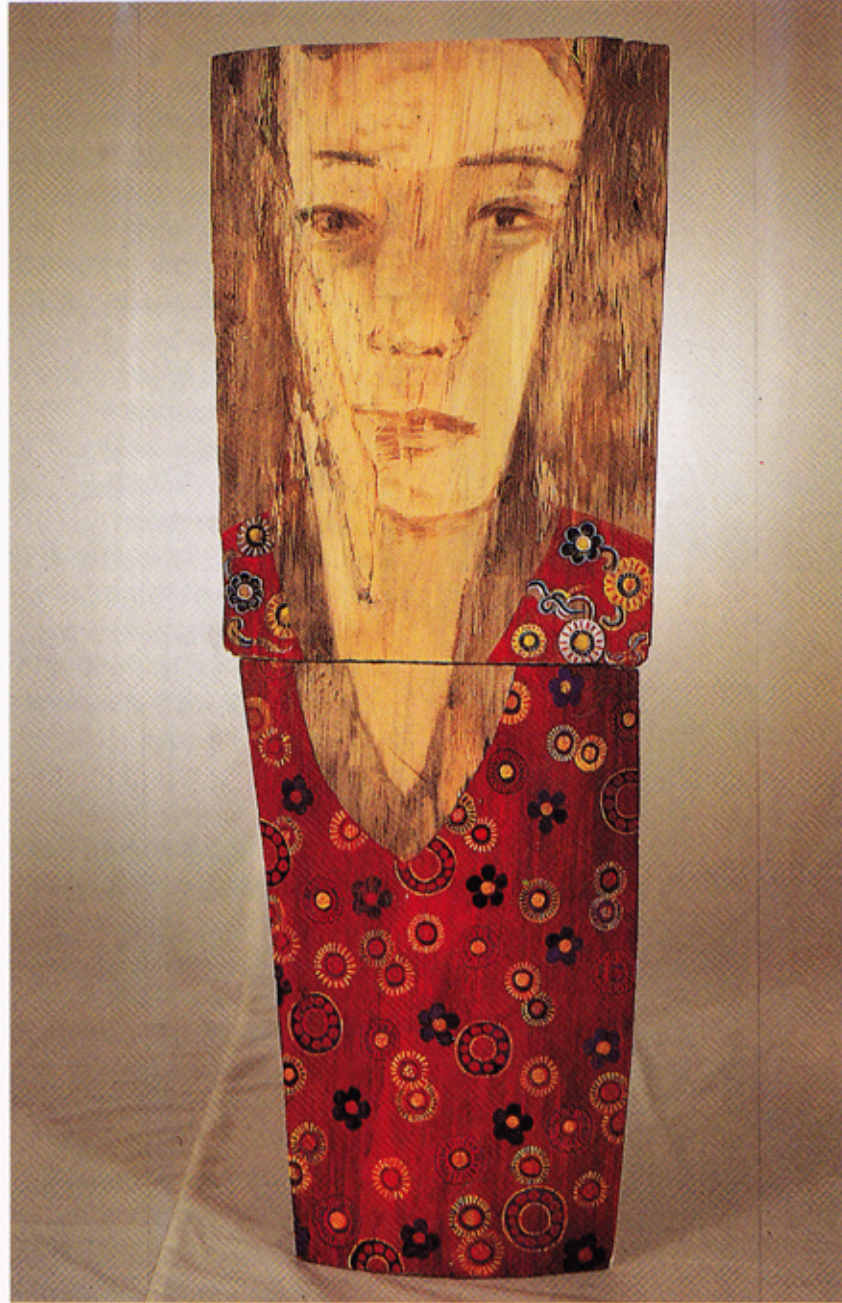
그럼으로써 거꾸로 결과적으로는 서구 페미니즘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곳에서 다양하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놓치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사회경제적 발전단계를 머리 속에서 구상하면서 우리는 서구에 비해서 아직 이르고,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식의 파악에서부터 우리는 단일민족이고 성(性)에 관한 관념이 다르기 때문에 인종문제나 동성애문제는 시기상조라는 말을 하는 경우—다르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곧 시기상조론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까지가 그것이다.

도식화의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페미니즘은 세 단계로 진행 발전한다고 이야기 된다.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 역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평등'적 편입의 시기로 시작되어, 여성은 남성보다 우월한, 혹은 또 다른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는 '차이'의 복원시기를 거쳐, 그런 '차이'의 문제 설정조차 가부장적으로 오염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하여 '제3의 공간'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단계까지를 거친다. 비록 그 다음의 진행이 앞서의 입장을 반대하여 치고 나오는 형태를 띠기도 하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일정한 순서를 따르는 단계별 진행이 아니다. 오히려 현실적 유용도에 따라 세 가지 유형이 겹쳐있는 진행방식을 따르며, 다만 현재로서는 그 문제의식을 가장 끝까지 밀고 나간 것이 제3의 형태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사회적인 '평등'의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매우 미진한 상태이므로 '모든' 문화 예술적인 논의도 이에 맞추어 '여성성(feminity)'이라는 차이의 문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남성의 권위를 폭로하고 비판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되면, 그런 입장의 페미니즘은 실제로 이곳의 다양성과 결합하는 생동적인 "페미니즘" 그 위에서 떠돌며 심지어는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말이 되기 쉽상이다.

따라서 페미니즘이란 말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서구에서 들었던 그 말의 운명에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또는 흥분하는 대신, 그 말 혹은 그 말이 속해있는 여러 이론적인 논의들을 다양한 인용문을 품고있는 일종의 텍스트로서 이해하는 차분한 주체의 시각을 지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 페미니즘의 발생과 전개맥락을 자세히 짚어내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권위적인 교과서로서 우리 현실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곳을 설명할 때 끌어들일 수 있는 인용문으로써 그것이 지니고 있는 도구적 유용성을 더욱 유연하게 하기 위한 것일 따름이다. 페미니즘이

서구에서 가지는 의미와 그 진행방식이  
우리와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그  
다름을 어떤 단계론으로 상쇄하기  
보다는, 거꾸로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집중하고 그것을 잘 드러내주는  
방법론들을 서구 페미니즘이라는 텍스트  
속에서 발견하고 인용함으로써, 또다시  
제3의 —서구에 편입하려고 하거나  
그곳과의 차이를 주장하기 보다는  
서구의 것을 먹어버림으로써  
초월해버리는 —그런 페미니즘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검토하는  
일이다. 그러면 페미니즘의 세 번째  
단계에 나타났던 제3의 공간이라는  
말에서 그 가능성의 단서를 찾아보도록  
하자. 말했듯이 제3의 공간은  
문제의식의 근본성과 반본질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그 공간은 기존하는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여성의 평등권을  
회복하려는 운동에 비해 그런 불평등의  
근원을 형성하고 있는 언어질서와  
문화적 틀까지 파헤친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것이다. 또한 생리학적인  
차원에서 남성성과 구별되는 여성성을  
설명해 내고자 하는 입장에 반해  
여성으로서의 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 개입되어 있는 문화적 과정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본질주의의 위험, 즉  
여성의 존재를 일률적으로 고정시키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말하자면 이  
제3의 공간은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차이를 초월하기 위해서 성차가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그것에 구체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열리게  
되는 공간인 것이다. 이로써 여성됨을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윤석남)나무 아크릴

구성하는 다양한 층위들, 역사적, 법적,  
정치적, 경제적 제한으로부터 심리적,  
생물적 특성까지, 곧 여성의 바깥과 안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문제틀로서  
문화적 영역이 관심을 모으게 된다.  
의사소통을 하고 일상적인 삶을  
꾸려나가도록 하는 여러 상징체계들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여성주체는 구성된다는 것, 즉 모든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만들어지고 스스로 그것을  
내면화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페미니즘 문화비평은 또다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것은 기존의 페미니즘  
문학론이나 미술론 등 전문화된  
고급예술론이 갖는 제한성을 펼쳐  
통합시킨다. 말하자면 그것은  
예술영역이 지니고 있는 방법적인  
예민함과 그 심도를 보존한 채로 보다  
대중적이고 일상적인 차원에서 그  
의미를 체험하고 획득할 수 있는 문화적  
커뮤니케이션의 통로를 발견해 가는  
것이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은  
여성주체를 형성하는 구체적인  
생산물들이 오고가는 해당  
문화영역들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여기서는 그것을 진단하기  
위해 일종의 파일럿용으로 우리나라  
일간지 한면을 분석해 보도록 한다. 이때  
신문이라는 대중적인 커뮤니케이션  
매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형성되고 있는  
여성에 관한 담론들을 걸러주는  
필터역할을 한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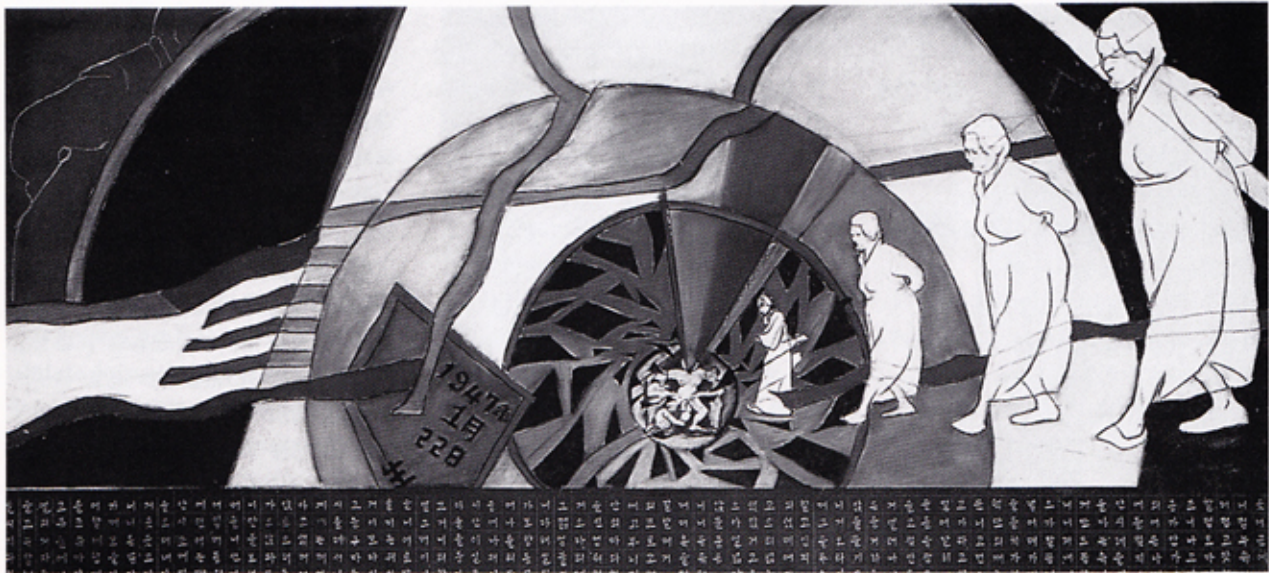
1994년 3월3일자 조선일보 19면을 보면  
여성관련기사가 특집으로 실려있다. 우선  
맨 오른쪽 기사는 “여성도 국제화 시가  
필요”라는 제목으로 아시아 신문  
편집위원과의 인터뷰가 실려있다. 이  
기사를 보면 17년동안 여성인권문제를  
위해 투쟁해온 한 여성운동가에 대한  
소개임을 알 수 있다. 일본 최초의  
해외특파원이었던 마쓰이 야요리는  
한국기생관광문제가 신문에서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들 간의 연대모임인 아시아  
여성들의 모임을 만들기도 했고,  
일본기업이 개발을 이유로 아시아  
각국에서 자행한 환경파괴와 그로 인한  
여성과 어린이들의 고통에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한국여성들도 한국기업이  
다른나라에서 저지르고 있는 환경파괴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그런데 이런 본문의 내용을 읽고 나면  
헤드라인으로 뽑아낸 것 — “여성도  
국제화 시가 필요”는 느닷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 헤드라인만을 보면 마치 항상  
남성에 비하여 열등한 존재였던 여성도  
이제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그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계몽적인’  
내용으로 들린다. 그러나 사실 이 인터뷰  
기사에서 국제화라는 말은 현재  
개방압력에 밀려 진행되고 있는 국제화  
담론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핵심적인 것은 여성간의 연대활동을  
강조하고 그 활동이 사회적 모순과  
억압을 타파하려는 여타의 다른  
운동들과 연관을 맺으며 진행된다는  
내용에 있다. 여성이라는 존재는

민족적이거나 국가적인 차원을  
가로지르는 그 공통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른 맥락에서 이미  
‘국제화’되어 있는 존재이다. 다만 각  
국가별, 민족별로 여성이 처한 상황에  
따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내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그런 구체적인  
연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기존의 진보운동이 놓쳤던  
환경문제등을 선제공격함으로써 ‘단지’  
여성의 해방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인권운동의 차원까지 끌어안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성의 시각은  
남성의 그것보다 훨씬 선진적인 셈인데  
이 기사의 헤드라인은 그것을 전도시켜  
놓고 있다. 더우기 이 기사가 세계  
여기자 포럼의 결과물로 나왔다는 점을  
알게되면 일상 속에서 페미니즘의  
시각을 일관되게 유지하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본문내용과 헤드라인  
사이의 간극과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그것은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활동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그  
뿌리깊은 의식상의 후진성이 우리  
머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과, 바로 그  
의식에서 나오는 남성중심적 언어들이  
사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페미니즘의 폭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드러내 준다. 결국  
실제적인 활동에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그보다도 그것을 해석하여 소통시키는  
상징이나 언어의 문제 자체에 더욱  
촉각을 세울 경우에 페미니즘의 시각이  
일관성을 갖고 소통될 수 있다.

그런가하면 그 옆의 박스기사에는

말을 낳던날의 기억 (김잔숙) 종이위에 파스텔, 145×72Cm, 1986



차이나 데일리지 특집부장과의 인터뷰가 실려있는데, 이 두 기사는 모두 전문적 여성에 관한 소개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실제로 여성전문적 종사자들이 늘어났다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다는 한 지표인 동시에 사회의 각 영역에서 더욱 구체화된 페미니즘 활동이 진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또다른 한편 그런 전문적 여성을 그려내는 여성상들은 독립된 인격으로서 자립하고자 하는 여성 개인들을 끌어당기는 매우 매력적인 것으로 자리잡고 있다.

같은 신문의 그 바로 원편에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여성상 선호도조사」라는 논문의 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이 실려 있다. 그리고 “자존심 강한 여자가 좋다”라는 헤드라인이 뽑혀있다. 그 내용을 보면

요즘 드라마를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는 새로운 여성상 중 대표적인 유형이 — 기존의 순종파나 현모양처가 아니라 — 깔끔한 능력파나 활달한 개성파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성품들을 지지해주는 것은 전문직 여성의 직업적 가치, 즉 남성보조적인 직업이나 혹은 사회적인 가치를 보장받지 못하는 전업주부들이 아니라 디자이너나 프로듀서, 광고회사 직원, 여기자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꾸며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현모양처나 순종형의 여성상이 실제 여성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체된 여성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되는 개성적인 인물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인물들이 얼마나 이른바 개성이라는 이름에 값을 하느냐이다. 종종 전문직의

여성상들은 그 기득권으로 인해 여성의 연대의식에 배타적인 것으로 그려지는데, 개성은 배타적인 자기주장과는 다른 차원에서 확보되어야 한다. 그 인물들의 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전문직 여성들이 지위에 올라서기 위해 겪은 곤란들, 혹은 현재 처한 상황까지를 고려하는 현실의 복합성은 물론 각 개인의 체험까지를 엮어내는 것이어야 한다. 정확히 말하면 각 여성의 체험이 녹아있는 다수의 개성적인 인물들이 있을 뿐이지 그런 개성을 총괄해주는 하나의 상이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요즘 광고나 드라마에 등장하고 있는, 이른바 개성파들은 전문직이라는 지위가 보장하는 자신감있는 제스처, 매력적인 화술과 유행을 선도하는 패션으로 그 개성의 다양함을 확보하려 한다. 따라서 그 인물들은 여성의 욕망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현실화시켜 주기에는 역부족이고 그저 스타일의 가벼움을 충분히 활용하여 이곳저곳으로 날아다니면서 순간적인 카타르시스만을 자극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개성적인 여성상에 관해서 말하기 보다는 일상 속에서 여성들을 구성하고 있는 그 다양함의 층위를 살펴보는 것이, 여성이라는 존재가 지니고 있는 복잡하고 때로는 모순적인 구조를 드러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자세히 보면 여성들 사이에는 여성으로서의 공통성이라는 기본코드를 각 여성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수로 변주를 해내는 차이들이 존재하고 있다. 신문의 기사들을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여성지 광고란에서 바로 그런 차이의 관계항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대중문화 영역은 잡식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기사들이나 학술적인 논의처럼 정돈되어 있는 대신 좌충우돌하면서 실제여성상을 구성하고 있는 문제의 층위들을 부각시키고 있다. 여성지 광고에는 “순명순 여사가 머느리에게 주는 내훈”으로부터 “순직한 선배경관 미망인과 결혼한 총각형사의 수채화같은 러브 스토리”라는 달고 달았으나 여전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는가 하면, 그 중간중간에는 “다이아 여자는 없다”는 혁신적인 제목의 프로여성들에 대한 기사들이 점점이 박혀 있다. 그밖에 젊은 여성들에게 늘어나는 습관성 유산이라는 생리학적인 문제나 말기 위암을 이겨내는 방법을 소개하는 여성건강의

문제를 다룬 기사들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여성이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갈등과 고통의 문제들을 표출하는 방식과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이런 여성지 기사에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내용들은 실제로 이곳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 행동과 몸 속에 각각 특수한 조합의 형태로 자리를 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성과 관련된 그 다양한 논의들을 누르고 광고란을 제패하는 것은 여성의 신체에 관한 그 수많은 신조어들이다.

엑서사이즈 워킹, 내추럴 메이크 업, 토마토 다이어트, 내추럴 생수 미용법, 피부가 젊어지는 젤라틴 미용법 등 단일한 광고란에서만도 참여개에 이르는 비법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여성의 지위나 연애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자기 몸을 가꾸는 것이 그만큼 여성들에게 절실하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실 건강 그 자체와는 거의 관련이 없다. 연일 소개되는 미용법이나 화장술 혹은 신체단련법 등은 모두 여성의 외모에 관한 것들이고 건강도 외모를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만 관심의 대상이 된다. 우리시대의 외모 혹은 육체는 마치 끊임없이 바뀌어 입을 수 있는 패션의 일종처럼 변화와 교체가 가능하며, 심지어 성형수술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 개조할 수 있는 것으로 변모했다. 따라서 예전처럼 인격이나 개성이 외모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관리되는 육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지위와 성격마저 결정되는 역전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육체가 어떤 실체로서가 아니라 이미지로서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각이다. 시각은 여타의 감각에 비해서 지각대상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체의 결여, 육체의 부재현상을 부추기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육체가 겪는 뚜렷한 분열은 바로 그 자신의 결여된 육체 위에 남성의 시각이 대신 들어서면서 시작된다. 그 광고란의 여성사진들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보여지는 대상으로서 그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있는 존재로 그려져 있다. 그리고 그 시선에 부응하고 외면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잘 관리해야만 하는 것이다. 더우기 그런 여성의 이미지가 잔상으로 여성 자신의 눈에 남을 경우 스스로 거울을 볼 때조차 남성의 시선을 다시 내면화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런 여성의 육체 이미지들은 개성적 존재로서 각 여성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함을, 또다시 보여지는 이미지라는 단일한 막으로 덮어버림으로써 단조로운 유사성만을 갖는 존재로 환원시키는 셈이다. 그러나 이 환원과정은 일상적인 수준에서 자신의 시지각을 매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번 더 깊이 여성의 존재 속으로 침투하는 과정이 된다. 나아가 그 침투의 과정은 여성 스스로의 분열적 경험을 동반하는 것이기에 이것을 제대로 '해제'하기 위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박인식**